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7호 [루체 제25075호] 주제 104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수천정보의 파수원 새로 조성

각지파수농장들에서

석탄증산의 불길 세차게 일으킨다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

파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통하여 차단관찰을 벌여나가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파수농장들에서 짧은 기간에 수천정보의 파일나무발을 새로 조성하였다. 이 기간에 수백만 그루의 파일나무ству와 기와 파일나무ству를 안고 현내적인 파수원조성에서 앞장섰다.

군에서는 파수업에 유리한 자연리적조건과 특수한 토대, 풍부한 경험을 최대한 이용하여 파수원조성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알고생存은 결정적으로 는이다. 그것과 함께 난파와 축산, 파수를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농업성에서는 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반들고 올해에 기낮은 사과나무를 비롯한 다수화물종의 파일나무발면적이 늘어나 파일생산을 전략적으로 늘여나갈수 있는 담보로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알고생存은 결정적으로 는이다. 그것과 함께 난파와 축산, 파수를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농업성에서는 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반들고 올해에 기낮은 사과나무를 비롯한 다수화물종의 파일나무발면적이 늘어나 파일생산을 전략적으로 늘여나갈수 있는 담보로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이 느끼게 되며, 대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가까운 시일안에 정양역에서 과학기술전당으로 왕복운행하게 될 무궤도전차로선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낮은 또 하나의 창조물이다.

지난 20일 정양역으로부터 과학기술전당까지의 새로선에서는 무궤도전차를 운행하는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이 느끼게 되며, 대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가까운 시일안에 정양역에서 과학기술전당으로 왕복운행하게 될 무궤도전차로선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낮은 또 하나의 창조물이다.

지난해 6월 쑥밭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우면서 쑥밭과 렘결된 충성의 다리를 개선보수하고 교통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갈 때에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과학기술전당건설과 함께 새

로 형성된 무궤도전차로선은 평양역에서 출발하여 이미 완공된

제297호 [루체 제25075호] 주제 104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당창건 70돐을 맞나니, 그에 맞이한 탄부들은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째고들어 생활방식과 품질을 더욱 세워나가고 있다.

특히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쟁임구미에서 석탄장을 새로 전개하도록 석탄증산을 확장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리 당력사에 뚝겁게 아로 새겨진

인민사랑의 따뜻한 정 넘치여 한식솔, 친형제로 사는 나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높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 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님을 위하는 고상한 품리가 공기처럼 넘쳐흐르는 내 나라 어느 곳이나 아름다운 인간들이 살고있었다.

온 나라에 만발한 미덕의 주인공들을 한시바삐 만나보고싶어 우리는 각기 길을 떠났다. 북행렬차로, 휘재차로, 도보로...

* * *

《봉!》 귀갓좋게 기적소리를 울리며 우리가 런 편차로 서평양역에 빠져난것은 초자녁이었다. 차창밖으로 평양의 밤거리가 훌려가고있었다. 동실 솟은 달을 배경으로 바라보는 평양의 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온 나라에 휴물아치는 창조와 건설의 열풍속에 몰라보게 달라진 서평양역구를 차창에 닦고 달리면 편차는 어느덧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머리속에는 해일이면 만나게 될 휘재의 주인공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김인숙.

그가 꼭 예술영화《우리 인민 반장에 나오는 주인공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편차가 강계시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오전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김인숙녀인의

사회주의 대가정에 만발한

페지르며 평양저수지와 물미산을 지난 취재차가 멈추어선 곳은 평양군 사현리 소재지였다.

마음앞에는 신포저수지의 푸른 물이 출렁이고 뒤에는 고교작은 바위들이 그 기교함을 자랑하는 마을의 자연경지도 좋았지만 그보다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긴것은 사현당에 피여난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지난 10년간 인민군원호사업을 풀심 향면으로 해온 너나라의 전선지대에 준준시상태가 신ро되었을 때 떨들파고 벌일 원호사를 마련하여 인민군원호들에게 보내준 그는 평생 사람들의 어머니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평양군상업판례원에서는 그를 영예군인의 어머니로 알았다.

그때로부터 어느덧 8년세월이 흐름었다. 수수께끼 날이 흘렀지만 명일동무를 위하는 김인숙동무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자기 평도자와 숨결을 같이하는 강계녀인의 깨끗한 충정, 이것이 어찌 그 하나만의 마음이라. 사회주의에 대한 미덕의 꽃을 피워하는 사람들모두의 마음속에 미덕의 꽃보다 먼저 풍정의 꽃이 피어있으리라.

김인숙녀인과 함께하는 우리 마음은 뜨거웠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 건설자들, 발전소원공에 기여한 련관단위 일군들, 근로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북상하였다. 편차를 돌아보면서 그들은 항일선열들의 혁명적 신념의 바탕을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게 굳게 밀고 끌어온 혁명의 전투사로 삶을 짚어내고자 했다.

그들은 먼저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이너사의 묘,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묘에 화환을 끌고 올립니다. 그리고 편차를 진정하고 목상하였다.

조국의 해방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대대로에, 국, 애족, 애민의 뜻을 이어오신 만경대일가문들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그들은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고 고향집드란에 들어섰다.

그들은 혁명과 건설을 봄도하시는 전기인 청년문화제를 혁명의 성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종교와 철학을 기울이면서 청년문화제에 참관한 그들은 전승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전승기념관에서 청년문화제에 참관한 그들은 전승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전승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대성산혁명사통을 찾은 그들은 수령결사용위의 숭고한 기암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전승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전승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은 그들은 전승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전승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